



클래식 음악에 ‘빛’을 더해주는 조명

조명은 생활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자 오락과 여흥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인간의 생활 주기가 노동 시간인 낮과 오락과 여흥 시간인 밤으로 나뉘게 되자 음악의 장은 밤으로 옮겨왔고, 조명은 공연(연주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초가 탈 때, 연주자들의 돈도 타들어가

17~18세기의 공연장에는 무대와 객석 전체를 비추도록 거대한 샵들리에가 설치되었다. 샵들리에에 사용되던 초는 당시 고가의 물건이었다. 그래서 연주가 연주회를 개최할 때, 경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조명 비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동물 기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탈 때마다 냄새가 심했고 심지를 계속 잘라주어야 했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향이 들어간 초를 사용하기도 했다. 18세기 후반의 라 스칼라 극장(이탈리아 밀라노)은 3,200명의 관객을 수용했고, 1792년에 완공된 라 페니체 극장(이탈리아 베네치아)도 3,000명을 수용했다. 당시의 극장이 그리 작지 않은 공간임을 생각해볼 때, 그 안을 밝히는 데에 사용된 초의 개수는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물성 기름이 연소되며 나는 냄새로 인해 관객들의 화려한 옷에선 ‘삼겹살 냄새’가 나지는 않았을까 상상도 해보게 된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조명의 기능이 차츰 바뀌어 갔다. 그 전까지는 무대와 객석 구분 없이 공연장의 내부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다면, 이제 객석의 조명을 줄여 객석과 무대가 대비를 이루는 방식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무대와 객석이 공간으로 한번 나뉘고, ‘빛’으로 인하여 한번 더 명확히 구분된 것이다. 1781년에는 라보아제가 ‘극장 조명 방법에 관한 연구보고’를 저술하여 발표했으니 조명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 조명, 실용을 넘어 무대 미용의 도구로

‘제 수입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없는 주제에 돈만 많이 가져가는) 악단, 조명, 경비원, 인쇄 등의 잡비가 큰 액수를 차지했습니다.’

모차르트(1756~1791)가 쓴 편지의 일부이다. 당시 연주는 연주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기본이고, 경비원, 포스터 인쇄는 물론이고 조

명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럼 당시의 조명 비용은 얼마나 했을까. 명확히 알 수 없지만, 1801년 모스크바의 신문 일면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연주회장의 조명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주회를 여는 자는 연주회장 소유자에게 여쩔 수 없이 200리브르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당시의 200리브르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공연의 입장료가 비싼 측에 속하는 5리브르였다고 하니, 연주가에게 조명 비용은 확실히 큰 부담을 안겨주던 존재였다.

연주자에게는 부담이지만, 관객이 빛에 대해 갖는 관심은 커져만 갔다. 앞서 말한 대로 초가 고가라고 하여도 그것을 사용하여 ‘빛’의 황홀함을 실감하게 해주고, ‘별천지’의 환상을 제공해준 곳은 공연장과 무대였다. 특히 초는 무대를 비추는 실용적(實用的) 기능 외에도 무대 효과를 연출하는 미용적(美容的) 기능도 도맡았다. 그 빛이 일구던 무대 풍경이 얼마나 몽환적이고 매력적이었는지는 영국작곡가 찰스 버니(1726~1814)의 일기에도 잘 나와 있다. 그는 이탈리아 나폴리에 체류 중이던 1771년에 산카를로 극장에서 니콜로 옴멜리(1714~1774)가 작곡한 오페라 <데모포온테>를 관람하고 한 장면을 기억하며 이렇게 적었다.

‘각 발코니 객석 앞에는 길이 3~4피트, 폭 2~3피트의 거울이 걸려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두 개의 커다란 초가 꽂혀 있었다. 초의 불빛은 거울에 반사되어 무대로 향하는 빛을 증폭시켰다. 화려했다. 눈이 아플 정도였다.’

오늘날 사용하는 조명기기의 전신이기도 한 이러한 기술은, ‘빛’을 통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과 관객의 상상력을 확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즉, ‘시간’예술로서의 음악은 ‘빛’의 역사가 개입되면서 ‘시각’예술로서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 빛이 없어져도 공연은 계속 된다

인간의 역사에 초가 조명 수단으로 등장하고, 그 뒤에 이를 대신한 램프가 사용되었으며, 이어서 가스등과 전구가 발명되었고, 나아가 형광등이 가정의 주요 조명 도구로 자리하게 되었다. 전구와 형광등의 시대가 열리면서, 초를 타게 하던 동물기름의 자리에 전구와 형광등을 밝



당인 當仁, 불양어사 不讓於師

히는 전기가 들어서게 되었다. 초에 비해 냄새도 없고, 화재 위험도 적은 전구와 형광등 그리고 전기. 하지만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시절에 연주회장에는 초나 등불이 늘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이다.

바이올린이 '제금(提琴)'이라고 불리던 1948년, 바이올리니스트 박민중(1918~2006)의 독주회 기사를 통해 당시 공연장 풍경을 들여다보자. '막을 올리자 때마침 정전으로 무대에 준비된 '칸데라' 불빛으로 겨우 연주자의 면모를 찾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연주는 시작되었다(동아일보 1948년 12월 9일자). 여기서 '칸데라'란 칸델라(kandelaar)의 과거 표기로, 호롱에 석유를 넣어 불을 켜서 들고 다니는 등의 일종을 일컫는다.

극단 광장은 셰익스피어(1564~1616)의 '원저의 명량한 아낙네들'을 국립극장 상연 중간에 정전으로 인해 촛불을 켜놓고 이어가야 했다(동아일보 1966년 6월 25일자). 정전은 공들여 만든 무대를 잡아먹는 '어둠'의 사자였다. 그래서 당시의 기사에는 '자가발전시설 하나 없는 국립극장의 위신과도 관계된 슬픈 현상(동아일보 1966년 6월 25일자)', '시내 3류 극장만 해도 자가발전시설을 갖고 있는 판에 정부 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극장이 이 모양이니 국립극장에 '국립'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니냐'(매일경제 1969년 11월 6일자)라는 비판이 실리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1970년대 까지도 비밀비재했다.

그런데 예술의 장르마다 정전과 어둠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나보다. 작곡가 백병동(1936~ , 전 서울대 교수)은 1960~70년대에 작곡 발표회를 할 때, 정전이 되면 준비한 초들로 무대를 밝혔다고 한다. 수십 개의 촛불은 전기 조명과 달리 '운치'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고, 그로 인해 음악 또한 다르게 들려왔다고 자서전 <소리의 사제>에서 회고하고 있다.

유럽은 물론 한국의 근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음악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주역의 역할을 한 빛. 인쇄술의 발달이 악보의 보급과 유통을 변화시켰듯이 빛과 조명도 음악사를 변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음악의 역사는 빛과 함께 발전했다 하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람은 완전한 신에 비해 지식과 의지 등 모든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신은 하기로 한 일은 그대로 실현한다. 사람은 하기로 했더라도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면 그때 하려고 한다.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호기심, 궁금증, 불안을 갖지 않는다. 사람은 아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결정해놓고도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좌불안석이다.

다행히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언어를 통해 토론하여 불완전함 속에서도 나름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혼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여럿이 함께 하여 어려움을 풀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 출신, 학력, 경력, 관심이 다르므로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여러사람의 생각이 끝까지 다를 때 공자는 어떻게 했을까? 유교가 가부장적이어서 순종적인 사람을 길러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논어』를 읽으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만한 덕목과 가치를 지키자고 요구하지 특정한 사람을 위해 복종하라는 주문을 하지 않는다. 특히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되는 핵심 사안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람다운 것과 관련해서 스승에게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당인 當仁, 불양어사 不讓於師) 스승은 학생의 지적 근원이다. 가부장적인 문화에 따르면 학생은 당연히 스승에게 순종해야 한다. 공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길인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중대한 사안이다.

양(讓)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다는 뜻이다. 불양(不讓)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불양은 스승에게도 뒤지지 않을 탄탄한 논리를 세우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해보라. 학문의 세계에서 학생이 스승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게임에서 자신의 주장을 지켜내려면 그냥 우기는 것만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언론도 선정적인 주장, 상투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 '불양어사'의 정신 자세로 사회의 현안에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